

광주~장흥 직선화 도로공사 지지부진

착공 8년 공정률 50%...2016년 의학박람회 전 준공 난망
전남도 사업비 감당 못해...국도 전환 특별국비 투입 절실

광주~장흥간 직선화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광주~장흥간 직선화도로인 국도 23호선과 지방도 839호선에 대한 4차선 확·포장 공사가 2016년 열리는 '국제 통합의학 박람회' 이전까지 준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화순군 이양면에서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구간인 총 연장 17.43km에 이르는 지방도 839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를 2016년 준공예정인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11월 현재 공정률은 겨우 50%에 머물고 있다.
지방도 839호선 확·포장 공사비용이 전라도가 매년 1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총 218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도 재정형편상 단기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당초 계획내 준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현재 총 연장 17.4km 가운데 굴곡이 심하고 도로여건이 취약한 장흥 유치면 피재 구간 4.4km는 지난해 1월 우선 임시 개통됐으나 터널 2개소와 나머지 구간 공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더욱이 이 구간(17.4km)이 준공된다 해도 장흥담 공사(수몰)로 폐도(2km)된 무적도로와 부산면에서 장흥읍까지 연결되는 국도 23호선(8km)에 대한 확·포장 공사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아 광주~장흥간 직선화도로 개설은 까마득한 실정이다.



광주~장흥간 직선화도로 미공구간
장흥군은 광주에서 전남도내 시·군을 잇는 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장흥간 직선화 도로만 개설되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남도에 사업시점부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시공사로 하여금 '선공사' 방식

(이자지급)이나 국도로 전환, 특별국비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욱이 전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국제 통합 의학박람회'가 장흥에서 2016년 개최하기로 확정돼 외국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 마당에 가장 중요한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벌써부터 국제행사 자체가 제대로 치러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형편에 놓이자 전남도의회 이종식위원을 비롯한 환경·건설 분과위원들이 지난 5일 현지 공사구간을 답사한 후 "앞으로 2년 후 '국제 통합 의학박람회' 개최를 위해서는 전남도가 국가지원도로 차원에서 특별 국비로 지방도 839호선 확·포장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방도 839호 노선은 당초 국도(29호선)로 유지돼 오다 지난 1987년 국도교통부가 지방도로 격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mkim@



강진만 찾은 겨울진객
지난 12일 겨울을 나기 위해 강진만을 찾은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호·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2급)떼가 물위에서 노닐고 있다. 겨울철새인 큰고니는 고니류 가운데 가장 크며, 강진만 등지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시베리아로 돌아간다.
<강진군 제공>



영암 산·학·관 일자리 창출 손 잡았다 郡·삼호重·세한대 등 조선업종 인력 양성 업무협약

영암지역 산·학·관이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전동평 영암군수와 하경진 현대상호중공업(주)대표이사, 고창희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 김경택 동아 인재대 총장, 김정필 구림공고 교장, 정치현 영암 전자과학고 교장은 지난 11일 삼호읍 호텔 현대목포에서 산·학·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주요협약 내용에 따르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기업에서는 맞춤형 채용훈련 및 채용정보 제공, 각급 학교에서는 채용정보 및 훈련정보 제공, 영암군에서는 일자리 정보의 상호교류 및 구인구직 업무를 수행한다.
전동평 군수는 "지역발전의 첫 번째 조건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지역 젊은이들이 영암에 살면서 맘껏 일하며 영암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민선 6기의 목표"라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정남진장흥농협 강경일 조합장 농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

정남진장흥농협 강경일(57) 조합장이 최근 열린 '제19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장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강 조합장은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도 지역 특산품인 표고버섯과 한우, 고품질 쌀의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 차별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조합장은 표고버섯과 한우,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에 따른 인프라 구축과 브랜드화, 유통 차별화에 주력했다. 특히 장흥 표고버섯을 전국 브랜드화하고 판매망을 구축했으며, 미국·유럽·일본·대만 등지로 수출해 고부가가



치를 창출,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 모산마을 '행복마을 콘테스트' 경관·환경 분야 은상

영암군 신북면 모산마을이 최근 경기안성 판랜드에서 열린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경관·환경 분야 은상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발굴해 각 시·군 마을간 선의의 경쟁과 학습을 통해 행복하고 활력있는 마을만들기를 유도하기 위해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마련했다.
영암군 모산마을 주민들은 한국농어

촌공사 영암지사와 협조해 마을의 전통과 경관·환경자원을 발굴하고 쾌적한 마을가꾸기에 최선을 다해 지난 9월 전남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이번 대회에 전남대표로 참가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모산마을 주민 스스로 주체가 돼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린 결과"라며 "영암 군내 모든 마을이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마을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강진군 2015년도 마을반찬 사업장 4·5호점 2곳 선정 다음협동조합·양우네장 이야기

강진의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마을반찬 사업장' 4호점과 5호점이 생겼다.
강진군은 "2015년도 마을반찬 도시사업에서 다음협동조합과 양우네장이야기 영농조합법인이 도시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0년 마을반찬사업장 1호점인 신전면 농정 부녀회를 시작으로 2013

년 2호점 김반장, 2014년 3호점 대월달마지 마을이 문을 열었다.
4호점에 선정된 다음협동조합은 귀농인들이 모여 설립한 곳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한 여러 농가가 모여 조합원과 마을주민이 단호박 식혜, 두부, 절임류 식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또한 5호점으로 선정된 양우네장이야기

영농조합은 성전면 월허리 월출산 남쪽 산자락에 위치한 양질의 콩 재배가 쉬운 지역으로, 전통방식으로 메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군은 내년 6월까지 4호점과 5호점으로 선정된 마을반찬 사업장의 시설이 완공되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SNS 매체를 적극 활용한 마케팅으로 도시지역의 직거래

소비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특색있는 각 마을의 반찬을 관내 식당에 공급해 안정적 소비기반을 구축하고, 맛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맛의 일번지' 강진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중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업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15,868㎡ 혁신도시 인근 생산관리지역 매 16억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나주시 동수동 전 배 과수원 2,784㎡ 공업지역 농공단지 옆 매 1억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전 5,600㎡(주택, 축사 포함,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관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 30억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동 감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4성급★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한국감정원 감정가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매매가격 상당 후 결정 현장 당사 요망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868-5151

중흥 s클래스 스카이31

6층/8층/13층/19층/20층 49m2
보300/월35만원

1층 30평 상가
보1억/월350만원

주인직매 010-8676-1900